

광주비엔날레 D-2 “나도! 아티스트”



30일 오후 광주시 동구 중앙미디어산업센터에서 열린 '2016 광주비엔날레' 시민참여프로그램 '나도! 아티스트' 개막식에 참석한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작품 앞에서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있다. '나도! 아티스트'작품은 비엔날레 기간(9월2일~11월6일) 충장로·양림동 등 광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. ▶관련기사 16면 /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내년 사상 첫 '400조 슈퍼 예산' 편성 '車 100만대' 등 지역 현안은 빠졌다

광주 1조7664억·전남 5조4141억 ... 무등산 군부대 이전·무안공항 활주로 등 반영 안돼

내년 정부 예산안에 광주 1조7600억원, 전남 5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됐다. <관련기사 2·3면>

내년 정부예산안이 올해(386조4000억원)보다 3.7% 늘어난 400조70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광주시는 5.9%(989억원), 전남도는 3.2%(1679억원)가 늘었다.

하지만, 내년 정부 예산이 400조원을 넘어서는 '슈퍼 예산'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.

또한, 광주의 주요 현안사업인 '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' 사업비 등 일부 현안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 사업의 추가, 반영 사업의 증액 등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히 필

요하다는 지적이다.

◇광주시=광주시의 내년도 현안사업비는 정부 예산안에 216건, 1조7664억원이 반영됐다.

신규사업은 47건(543억원), 계속사업은 169건(1조7121억원)이다.

특히 광주시는 ▲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구축(20억원) ▲남구 도시첨단산단 진입도로 개설(10억원) ▲애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(15억원) ▲수소충전소 부품인증 기반구축 및 국제표준화사업(51억원) 등 일부 경제분야와 사회간접자본시설(SOC)분야의 신규사업 반영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.

분야별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및 콘

텐츠 개발(484억원) 등 문화·관광 사업이 45건, 871억원이며, 지역경제 활성화, 연구개발(R&D) 등 신성장동력 사업비는 경제협력력 사업 육성(112억원) 등 68건, 2263억원이 반영됐다.

그러나 광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 조성(403억원)과 시민들의 숙원인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(50억원) 사업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.

◇전남도=전남도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33건 5조4141억원이 반영됐다.

올해 예산안에 비해 1679억원(3.2%)이 증가했지만,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한 지역현안 국고 예산 반영 건수는 144건에

2조243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. 건의한 사업 가운데 정부 예산에 반영된 비율이 절반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다.

반면, ▲무인기 개발 성능 시험평가 기반 구축 사업(27억원) ▲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(15억원) 등 전남의 미래성장동력을 이끌 신규사업이 반영됐다. 또한,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(19억6000만원) 등 지역 사업 다수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.

하지만,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,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조성, 광주~순천 간 전철화사업 등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됐다.

/최현배기자 cki@kwangju.co.kr /유현석기자 chadol@kwangju.co.kr

상무소각장 활용 견해차

광주 시민 “문화시설로”·인근 상무주민 “교육시설로”

도시공사 부지 아파트 개발 ... 시민 “찬성” 주민 “반대”

광주 도심 속 대표적 남비시설로 연말 폐쇄를 앞둔 상무소각장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과 소각장 인근 상무지구 주민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.

광주시는 연말까지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이지만, 이견 차이가 커 적지 않은 갈등과 난항이 예상된다.

광주시는 30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상무소각장 활용방안 테스크포스(T/F)위원회 5차 회의를 하고 설문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.

소각장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이 조사는 소각장 인근 상무지구내 14개 아파트 9088가구와 시민 1064명 표본조사로 실시됐다. 인근 주민은 60%에 약간 못 미친 5442가구가 유효세대로 집계됐다.

조사 결과 부지와 시설 활용요도를 묻는 질문에 시민과 상무 주민간 이견이 적지 않았다.

상무주민의 선호도는 교육시설(21.0%), 복지시설(16.9%), 문화시설(14.4%) 순으로 높은 반면 광주시민은 문화(19.1%), 복지(14.2%), 생활체육(12.8%) 순이었다.

특히 소각장에 인접한 광주도시공사 소유 사업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서는 괴리감이 더욱 컸다.

인근 주민들은 이 부지를 소각장 사업 부지에 포함, 시너지 효과를 높여주는 주장인 반면 도시공사 측은 600억원대가 넘는 토지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

이다. 또 도시공사 소유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안에 대해 시민들은 56.2% 찬성했지만 상무주민은 31.4%만 동의했다. 상무주민은 이 개발안에 반대 의견이 51.9%였다.

광주시는 설문에서 문화시설로는 극장·전시관·박물관 등을, 교육시설은 도서관·국립유치원 등을 제시했다. 또 복지시설은 노인종합복지관·청소년복지관, 생활체육시설은 수영장·빙상장·다목적 운동장 등을 예로 내놴. 활용방안 선정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는 상무주민의 85.8%는 자신들을, 광주 시민은 43.3%가 시민에 방점을 뒀다.

이밖에 소각장 운영에 따른 피해 정도로 상무주민과 시민 각각 83.0%와 48.2%가 ‘높다’고 답했다.

광주시는 앞서 소각장 부지 활용방안을 접근성, 항공기 소음 등 지역 여건과 사회·문화적 특성 고려, 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등 3가지 원칙을 세운 바 있다. 광주시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활용방안 용역을 재개하고 10월말까지 용역 결과 보고회를 한 뒤 연말까지 최종 활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.

한편 상무소각장은 공사비 743억원이 투입됐으며 착공 5년여만인 2001년 6월부터 가동 중이다. 내구연한은 15년으로 연말 폐쇄된다. /최현배기자 cki@kwangju.co.kr

2019 수능 11월 15일... 영어 절대평가·한국사 필수

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응시하는 '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'(수능)은 오는 2018년 11월 15일 치러진다. 성적은 2018년 12월 5일 통보된다.

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'2019학년도 수능 기본계획'을 발표했다. 영어는 절대평가가 적용되고 한국사

는 필수로 치러지는 등 올해 수능과 같은 방식이다. 영어·한국사 영역은 성적표에 원점수를 기준으로 1~9등급으로 표기된다. 수학은 이과와 문과를 고려해 '가'형과 '나'형으로 출제된다. 2019학년도 수능 세부시험 계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8년 3월에 공고한다. /김지율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성과상여금 마찰 왜 광주서? ▶6면



KIA 가을야구 '천군만마'
 윤석민·김진우·안치홍
 잇따라 돌아온다 ▶20면

Passion [열정], Vision [꿈], Truth [진리]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
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!!
 입학문의 학부 (062) 605-1114
 대학원 (062) 605-1115



생각한다. 반응한다.
 지능적으로

The New E-Class. Masterpiece of Intelligence



Mercedes-Benz



신성자동차

신성자동차(주) 광주 전시장
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(화정동) | Tel. 062)226-0001

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

E 300 (배기량: 1,991cc, 공차중량: 1,740kg, 자동9단) 복합연비: 10.8km/ℓ (도심연비: 9.6km/ℓ, 고속도로연비: 12.6km/ℓ), 등급: 4등급, 복합CO2 배출량: 161g/km E 300 4MATIC (배기량: 1,991cc, 공차중량: 1,790kg, 자동9단), 복합연비: 10.3km/ℓ (도심연비: 9.3km/ℓ, 고속도로연비: 12km/ℓ), 등급: 4등급, 복합CO2 배출량: 169g/km
 ※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, 운전 방법,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
 ※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